

GCF 출범이후 가교역할 강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손 양 훈



우리나라에서 지난 12월 초에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1세기 인류의 최대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재정문제를 다루는 신생 국제기구이다. GCF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고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출범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갖는다. 향후 조성금액과 연도별 규모는 2014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 저탄소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OECD 가입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수가 약 1,336억 달러인 점을 보면 향후 GCF가 실현되었을 때의 규모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GCF의 송도 출범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GCF 유치 및 출범과정은 국내의 각 부문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 유치경험이 거의 없는 후발주자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성공적 협력모델을 보여 줬고, 국회도 여야의 대승적 협조 하에 GCF 유치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 이와 관련된 합의구조를 만드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협력프레임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둘째는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성과가 국제정치적 블록의 한계를 뛰어 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GCF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성과로 출범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녹색성장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GCF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국제기구를 동아시아 지역에 유치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미래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 될 전망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실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세계경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개도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려면 GCF를 통해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후기금을 조성할 선진국과 이를 활용할 개도국 간에 조성규모, 재원, 활용분야, 활용조건, 기금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향후 자금의 확보나 당사국간 할당의 경우에도 협력모델을 잘 구현하고 작동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교역할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기금의 재원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강화된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GCF가 출범함에 따라 창조경제와 기후변화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